

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11월 3일 <월간>

www.jeb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5호

장애인 교육·복지 '제주 최고'

한국장애인총연맹, 17개 시·도 비교조사 결과



▲ 한국장애인총연맹은 지난달 국회정론관에서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와 교육 분야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 교육영역에서는 총복이

79.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으며, 제주를 비롯해 세종, 울산, 충남, 경남 등이 우수등급을, 서울과 전북 등은 분발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복지분야는 대전이 69.8점으로 최우수 등급

을 받는데 이어 제주가 57.4점, 광주가 57.6점을 받는 등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부산과 경기, 전남, 경북지역이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로 조사됐다.

특히 등록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32.55% 향상된 230.6만원

18개 영역에서 우수등급 획득 지역간 격차 커 균형적 발전 필요

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역시 전년 대비 24.99% 향상(2.41%)시킨 제주가 우수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지표별 세부등급에서 제주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비율 ▲지역사회재활 시설 종사자 비율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등록장애인 1인당 문화, 체육, 여가 예산 지원액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등 18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장총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17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예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편차가 심하다"며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성황리 마쳐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2014 제주 나눔대축제'가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구청지 도의회 의장, 제주도민 등 약 60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의 지역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한우협회와 KT &G가 기부식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300인분의 '나눔비빔밥 만들기'를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사진) 이어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지는 나눔 콘서트, 제주유나이티드FC 팬사인회, 도서관부 릴레이로 이루어진 책 나눔 등 다양한 무대행사를 마련했다.

둘째 날에는 맛있는 나눔행사로 '우리가족 나눔버거 만들기'를 진행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과 함께 음식나눔을 실천하며 축제의 의미를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됐다.

☞ <관련 기사 2면, 3면, 7면>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행복기자단·2 10대 시선으로 바라본제주(19) 법률상담터(15)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사회복지소식 4~5면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국장애인문화예술인대축제 열린다	■ 특집 7면 사진으로 본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 전면광고 8면 제5회 '명예의 전당' 등재자 추천안내

11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2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	Performance Network / 표경희(웰컴대표) 사회복지기관 조직문화 만들기 / 김미경(웰컴 공동대표)	5일(수) 10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 참가비 있음	702-378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회계초과과정1~2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파견강사	25일(화)~26일(수) 10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 참가비 있음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신청사업 '장애·비장애 하모니를 통한 상생으로 행복바이러스 전파하기II'	장애인어울림 '띠앗'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7일(금) 19시30분 / 문예회관 대극장	753-498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관련 2014 함께하는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일상생활의 불편함 개선,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기능 개선, 모두가 편리해지는 디자인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 및 도안 출품 - 참가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게시된 양식 작성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21일(금) 18시까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702-0295,6
연강병원	11월 도민강좌 / 가족교육 강좌	알코올중독 / 강지연 이사장	20일(목) 17시~18시 / 연강병원 1층 회의실(오등동)	726-7900

제주행복기자단 · 2 -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현장 취재 1'

제주에서 시작된 제3의 물결 '나눔 문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종합경기장 광장에서는 「2014 제주 나눔 대축제」가 원희룡 도지사, 구성지 도의회 의장, 제주도민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제5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의 지역행사로 제주를 비롯한 서울·부산·경기·인천·대전·울산·광주·충북 등 9개 시·도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나눔명 살아온 대로 나누명 살아가게 마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함께하는 나눔, 공감하는



▲ 지난달 11일~1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진행된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행사 일환으로 '우리가 죽 버거 만들기' 참여한 가족들 모습 (사진제공=전진호(前 웰퍼어뉴스 편집국장))

나눔, 참여하는 나눔, 실천하는 나눔을 포함하여 나눔 도서관과 도민 참여 작품 제작까지 등 총 60여개의 체험부스로 운영이 된 본 행사는 수놓음 정신을 기본으로 제주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전과

확신을 심어주는 자리였다.

마림바 연주와 아카펠라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개막식에서는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기업체 등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한우협회와 KT&G가 나눔축제에

동참하고자 기부식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과 함께 300인 분의 나눔 비빔밥 만들기 이벤트를 비롯해 <지혜로운 나눔>행사는 도민참여로 사전에 책을 기부받아, 행사당일 책 나눔 현

장에서 책을 교환하고 구매하는 나눔이 이뤄졌다.

<건강한 나눔>으로 SK유나이티드 선수단 팬사인회와 8개 팀의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진 <노래하는 나눔> 나눔콘서트 또한 흥미로웠다.

이튿날 진행된 <맛있는 나눔>으로 가족과 함께 햄버거를 만들고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나눔'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고 생활속에서 손쉽게,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눔'이라는 것은 준비되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이의 행복과 받는 이의 행복이 함께 늘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제3의 물결인 '나눔 문화'가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천현우기자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0월 식품기탁자

▲금강수산유통=고등어 40kg ▲금강축산유통=육류 560kg ▲김치원=김치 30kg ▲꽃비나리는뜨락=떡 512개 ▲동원F&B제주=냉동및냉장식품 3377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235모 ▲신화유통=다진마늘 70kg ▲암암영농조합법인=빵 304봉 ▲이에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고추 10kg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이도점=빵 188봉 ▲제성상회=햄 150kg ▲제주보리촌=보리빵 60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826봉 ▲행복나눔마트=식재료 110개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32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80,000	380,000
복지사업후원	1,010,000	2,076,510
푸드마켓후원	2,655,000	586,9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김수완 ■ 등록번호: 제주 라 01010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장애자녀와 부모사이 감정코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원장 이규봉)의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향상을 위한 감정코칭 교육'을 오는 4일까지 9회기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사고와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교육은 헤세드미술치유상담소 이혜숙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열렸다.



문화탐방기금마련 행복나눔바자회 개최

약천사 자광원(원장 권오중)은 지난달 4일 잔디마당에서 '제3회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바자회는 후원 물품 판매와 체험코너로 꾸며졌으며, 수익금 전액은 자광원 거주인

함께 떠나는 '일상 탈출 희망여행'을 위한 쓰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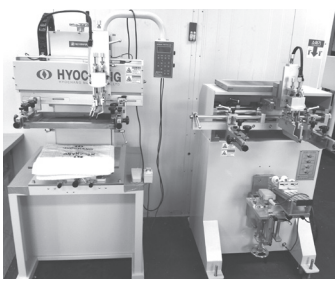
제주은행광장지점, 중문삼성연합의원, 중문청우회, 아나올봉사단, 약천사리틀분다 어린이 합창단 등 많은 단체와 후원자,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풍성한 자리가 됐다.



혜정원, 판촉물 실크인쇄기 기능보강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외부지원사업선정 지원으로 판촉물 제작을 위한 평면 및 곡면 실크인쇄기를 구입했다.

이번 기능보강으로 수건에 한정됐던 판촉물 생산이 컵, 볼펜 등 원형모양의 기념품으로 확대돼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9) - '2014제주나눔대축제 현장 추재 2'

‘지혜로운 책 나눔으로 기부에 동참해요’

겨울의 찬바람을 미리 맞이하는 듯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던 10월.

몽생이기자단 2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4 제주나눔대축제’ 현장에 다녀왔다.

매해마다 진행되는 나눔축제는 도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나눔으로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러 기업과 도민 분들의 기부를 통해 훈훈한 축제가 마련됐다.

함께 하는 나눔터, 공감하는 나눔터, 참여하는 나눔터, 실천하는 나눔터 등 총 60여개의 부스를 나눠 운영하고 있었다.

축제 기간 중 나눔카페와 기념 포토존, 희망나눔엽서 쓰기, 캘리그래피 배우기, 캐리커처 그리기, 제



▲ 몽생이기자단은 지난달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책나눔 현장을 다녀왔다.

주나눔문화 교육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렸다.

몽생이 기자단 2기는 무대행사로 진행되는 행사 중 ‘지혜로운 나눔·책나눔’을 취재했다.

책 나눔 행사는 도민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부를 통

해 확보된 도서 3000여권을 비치하여 현장에서 도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각 가정에서 보지 않는 책을 가지고 와서 다른 책과 교환할 수도 있었다.

책가격은 선택한 책의 가치만큼 기부하면 모아진 기부 금액은 누구나 책 읽

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쓰여진다. 이것이 나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책 나눔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모습에서도 자신이 읽고 싶은 책도 골라갈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듯 했다. 가정에서 읽지 않는 책을 가지고 와서 기부를 하는 도민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나눔과 기부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일임을 느끼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작은 나눔을 통해 더 큰 나눔을 배우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계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⑤

배상명령신청관련 사례

양육비를 부담하던 남편이 살해당해 생계가 곤란해진 기초수급 가정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이혼한 전 남편이 살해를 당했어요. 지금 막 발인을 마치고 오는 길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씨(여)는 법률홈닥터의 상담을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에 연계되어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회사의 사업 자금 문제로 다

투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씨는 남겨진 아이들을 위하여 당장 장례식 이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전 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률홈닥터에게 긴급히 연락을 하였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배상명령제도를 알게 되다

당시 A씨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었으므로, 법률홈닥터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보실 것을 권유하는 한편, 배상명령 신청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이후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A씨는 황망한 사고 앞에 당장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다.

◆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분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분
- 피해액을 입증할 서류

INFO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24일 도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강중훈)와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지방행정동우회 도지회는 제주도에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예산 회계 등의 일반 행정 처리의 문제

점 해결에 대한 지도와 교육컨설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하고, 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홍보 및 컨설팅 참여시설 모집 등을 지원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6년 연속 우수시설 쾌거

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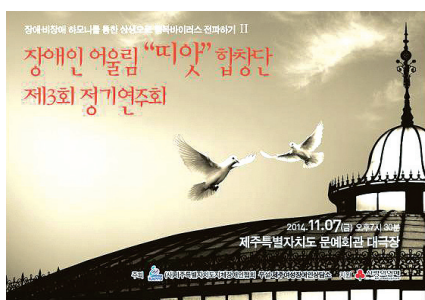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원장 양창오)은 2014년 전국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평가서 최우수기관을 차지하며 전국최초 6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은 운영 및 재정관리, 상담 및 판촉사업, 홍보 및 개발사업, 조달사업, 지역사회 관계, 시설환경 및 인력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1위의 쾌거를 거뒀다.

소/식/마/당

미애표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 내 장애인어울림 미애표창단은 오는 7일 제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장애, 비장애 하모니를 통한 상생으로 행복바이러스 전파하기 II’를 주제로 1부에서는 합창곡 ‘풍보새’ 외 5곡, 2부에서는 수원 영통여성합창단과 노원구립여성합창단의 찬조출연, 3부 합창 ‘네잎클로버’ 외 4곡으로 구성해 연주회를 갖는다.

한국자원봉사학회 추계학술세미나



한국자원봉사학회(회장 이창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과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한 이번 세미나는 갑작스런 재난·재해에 대비한 자원봉사기관·단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4/4분기 소방교육 실시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재난교육대에 방문하여 4/4분기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용인들이 좀 더 화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제주소방재난교육대의 교육과정에 맞춰 농업체험,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탈출 등을 진행했다.

박물관 놀이기, 본태박물관을 가다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성욱)는 지난달 2일(목) 아동 20명과 함께 본태박물관과 방주교회를 방문했다.

이 사업은 아이들과 미래, KB국민은행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전통수공예품 전시와 특별전시인 ‘쿠사마아요이’ 전시품 관람과 스티커 체험하며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이흥기)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금평동 세미나실에서 28개 회원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는 흥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의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부모자조모임, 사회적기업 견학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서 운영 중인 장애인부모자조모임은 사회적기업 물마루된장학교 견학에 다녀왔다.

이들은 이날 견학에서 장애자녀의 직업에 대한 진로모색 및 된장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원예활동과 도예체험, 요리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조모임 활성화를 꾀했다.

직원대상 개인정보취급 교육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달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취급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향기롭고 따뜻한 나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지난달 11일에 열린 ‘2014 제주 나눔대축제’에 장애생산물 판매와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한 제주중학생들과 플로메 근로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커피를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했다.

빛누리실버연극단 특별공연 펼쳐

제7기 빛누리실버연극단 특별공연

* 2014년 10월 23일(목) 15:00 문예회관소극장 * 주최 : 그노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내 제7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지난달 23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특별공연을 펼쳤다. 이번에 무대에 올린 작품

‘오해’는 노인의 황혼, 재혼으로 겪게되는 오해와 갈등을 소재로 지난 6월 연습을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총 11회 공연을 목표로 연극공연을 진행 중이다.

전국장애인문화예술대축제 열린다

오는 5일 탐동해변광장서

오는 5일 제주시 탐동해변광장에서 ‘제1회 전국장애인문화예술대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장애청소년 풍물패 ‘땀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지적장애인청소년으로 구성된 ‘락(Rock)-드림 밴드’가 사랑과 희망이 담긴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프로밴드 ‘4번출구’와 블루스풍



의 실력과 흥대 인디 뮤지션 ‘하수상 밴드’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다. 공연장 옆으로는 로드 갤러리를 비롯하여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서각으로 도장찍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본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후원으로 진행된다.

노인복지시설 어르신과 함께한 행복한 초대



(주)이랜드파크(대표이사 강성민)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이랜드파크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함께하는 ‘제4차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업을 진행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치러진 이번 행사는 이랜드파크 제주지역 4개 지점(켄싱턴 제주호텔, 제주호텔, 켄싱턴 리조트 서귀포점·한

림점, 한국콘도 중문점) 직원자원봉사자들이 도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30여명을 모시고 서커스 공연관람, 가요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점(총지배인 김광인)으로 초대하여 리조트 현장체험(BBQ 식사, 숙박, 해수사우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소/식/마/당

2014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마라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는 지난달 7일 마라도를 방문하여 ‘2014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는 마라도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가정 생필품 나눔,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지역주민 욕구조사, 해변가 환경 정비 등을 진행했다.

다함께 어우러지는 기분 좋은날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은 지난달 7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요양원 마당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요양원 어르신, 보호자, 외도동에 위치한 10개 경로당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340여명을 초대해 함께 했다.

정낭봉사단, 노인대학 8기 졸업생 실버봉사단, 외도 난타 ‘두드림’, 제주두레, 성지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해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을 선사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 개최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오는 8일 탐동야외공연장에서 비전페스티벌 연합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축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에게

재능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서로의 재능을 봄으로써 자신의 목표와 도전의식을 갖도록 해 더욱 높은 비전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기보호 기술교육 가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중등 위탁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보호 기술교육 프로그램 ‘마법의 성(性)’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성교육 강의, 성폭력 피해 대응방법 및 올바른 이성교제 교육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영락복지관 느영나영팀 자원연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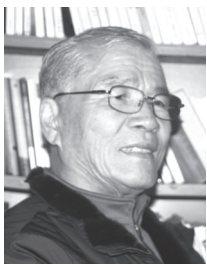


영락복지관 느영나영팀은 자원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달 1회씩 노인의료복지시설 제광원(원장 이성덕)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느영나영팀은 제광원 어르신을 위한 생신 잔치시 노래와 율동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지루함과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칼럼

똥딴지



김길웅

시인 · 수필가

말도 풍상을 겪는다. 사전적 의미가 속화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좋은 말이 고운 빛깔을 잃어가고 있다. ‘무던하다’고 하면 정도가 어지간하거나 성질이 너그럽고 수더분하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그만하면 머느리로서 무던한 편이다’라 한다. 이 말이 ‘어딘가 간에 차지 않거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의 어감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다. ‘무던하긴 한데...’라면 그런 여운이 있다.

‘적당하다’처럼 반듯한 말도 드물다. ‘적당’이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다는 뜻이니, 이 이상 사리분별에 합당한 말이 있으랴 싶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적당주의’가 임시변통이나 눈가림으로 대충해 버리는 태도나 생각으로 바뀌었다. 사회가 혹은 사람의 의식구조가 세속적으로 오염되면서 생뚱맞게 말을 밀동에서 뒤흔들어 놓았다. 딱 알맞게, 반듯하게 해야 할 일을 대충해 치우는 것을 ‘적당주의’라 하고 있으니, 정신문화의 그늘진 구석을 바라보는 것 같아 처연하다.

팔자고친 ‘똥딴지’

‘똥딴지’라는 식물이 있다. 국화과로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식물이다. 인가 부근에서 자라고 9, 10월경에 노란 꽃이 핀다. 구름 한 점 없는 짙은 벽공을 배경으로 핀 자태가 영락없이 해바라기를 닮았다. 그 꽃이 어여쁘네, 어여빠 핀 노란 꽃을 ‘똥딴지’ 또는 ‘돼지감자’라 부르니 그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똥딴지’는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우둔하고 완고하여 무뚝뚝하

다는 뜻도 들어 있다.

어여쁜 꽃과 달리 뿌리를 캐어 보면 아무렇게나 생긴 덩이줄기가 나오는데, 맛이 없어 돼지 사료로 쓰면서 ‘돼지감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내면의 품성 놓치치 말아야

원래 돼지감자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식량이었다. 17세기경부터 유럽에서도 식용으로 사용됐으며, 프랑스어로는 ‘폼테르’라 해서 땅의 사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똥딴지에게 역전의 시절이 도래했다. 이 돼지감자에 들어 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이 재배하게 된 것이다. 그 못 생긴 똥딴지가 사람을 살리는 효능을 지녔다니... 사람도 외모만으로 선불리 판단할 게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품성을 놓치지 않는 혜안(慧眼)을 지녀야 하리라.

팔자 고친 ‘똥딴지’처럼 ‘무던하다’와 적당주의가 제 얼굴을 찾았으면 좋으련만.

시론

증세논의, 시작해야 한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장애인 중에는 택시운전사들이 있다. 제주도의 인센티브도 있었고 운전에만 집중하면 되니 편찮은 직종으로 인식되어 10여 년 전에는 도내에 20여명이 넘기도 했다. 그 중 한 분이 며칠 전 사무실로 찾아 왔다.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별이가 예전에 비해 시원찮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운전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진 게 이유다. 돈이 궁하니 학원차도 운전했던 모양인데 잠이 모자라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마저 그만 두었다고 한다. 궁핍한 살림살이에 건강까지 잃을 처지다. 그의 집사람도 장애인으로 전업주부이고 다둥이 아빠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에, 취학 전 아들이 한명 더 있다. 그러기에 무리를 한 것이다. 큰 딸이 공부를 잘해 딸 이야기에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얼굴빛이 잠시 펴지기도 한다.

하지만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내 침울하다. 나를 찾은 이유는 우리 기관의 장애인야간학교에 차량운전자가 필요할까 싶어서다. 때론 장애인을 업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였다.

사회적 위험 비용 복지확충 통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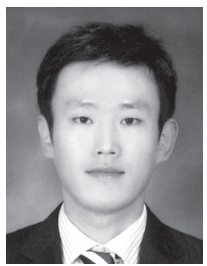
건강부터 챙기고 다른 직종을 찾거나, 취업훈련을 받을 의향을 물어 봤다. 마흔을 훌쩍 넘긴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어떻게라도 당장 돈을 벌어야한다고 자리를 나선다. 그의 꿈은 개인택시를 장만하는 것이었다.

이런 대화 후엔 기분이 우울하다. 나 역시 직업을 잃고 건강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나를 적절히 보호해줄까 하는 의문이 있어 그렇다. 특히 나이 오십 언저리에 오니 조바심은 더욱 많아졌다. 기껏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십수년이고 노후대책이라곤 수십만 원의 연금 수령 외에는 없으니 생각하면 땀이 난다. 증세는 없던 정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나라재정이 모자라 돈 나올 구멍을 서민들에게서 찾고 있음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럼에도 거둬들인 세수를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복지재정에 투입하길 기대한다. 차제에 부자를 포함해 국민증세에 대해 논의를 하자. 조세저항을 말하지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고 긍정적 답이 49%로 부정적 답 30%를 넘어선지 오래다. ‘무상보육’을 통해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체감한 결과다. 개인택시 꿈은 버리더라도 생계 때문에 종국에는 건강을 잃고 가족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특히 노동력을 상실할 위험의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는 복지확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민은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하라고 하고 있다.

기고

더 큰 제주를 만드는 출산과 보육정책



양재덕

제주시 여성가족과

‘3남 2녀도 5명은 낳아야죠’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던 1950년대의 인구정책을 나타내는 표어이다.

현재는 OECD 28개 국 중 27위를 할 정도의 낮은 출산율(1.3명)을 보면 반세기의 짧은 시간동안 인구 증감을 변화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1년 이후 『출산율 2.0 제주플랜』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2020년까지 출산율 2.0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

진 중이다. 먼저 보다 많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셋째:60만원, 넷째: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84개월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약자의 출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1~6급의 등록 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대상으로 120만원 이내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 밖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다

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 결과, 2014년 9월 기준으로 출산율 1.43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차원에서 펼친 여러가지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의 장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를 갖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및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나눔으로 행복했습니다”

나누면 기쁩니다. 그래서 나눔은 축제입니다. 우리사는 삶이 늘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 ① 지혜로운 나눔 - 도서기부 ② 나눔콘서트 - 오카리나 연주 ③ 플로베 나눔카페 - 100원의 행복
④ 공감하는 나눔 -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재능기부 ⑤ 맛있는 나눔 - 우리가족 버거 만들기



〈사진제공=전진호(前 웰퍼어뉴스 편집국장)〉

제5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등재자 추천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공적 및 활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명예로운 자원봉사자로서 영원히 기록됩니다.

| 추천대상 |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현재 활동 중인 개인, 타계한 자원봉사자)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 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자

| 추천자격 |

제주도내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대표

| 제출서류 |

- 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나. 상반신 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다.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사진, 인쇄물 및 신문스크랩 등)

| 신청방법 |

- 가. 신청기간 : **2014. 11. 10 (월) ~ 2014. 11. 28 (금)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690-8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전화번호 : (064)702-3783~4

|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 등재기념 순금뱃지 시상
- 등재기념패 증정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